



# 아침을 여는 오케스트라의 향연

### 김해진영대창초, 제5회 등굣길 꿈꾸는 음악회 개최

경남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교장 이지현)는 6월 27일 아침 8시부터 30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9명이 마음과 소리를 모아 펼치는 '제5회 등굣길 꿈꾸는 음악회'를 열었다.

경소의 아침 풍경과는 달리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하는 아침 등굣길의 풍경은 평화로운 학생들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지역민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솜We오케스트라는 창단원 이후

대상 및 은상을 수상하는 등 규모와 연주실력 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로 다섯 번째를 기록하는 '등굣길 꿈꾸는 음악회'의 첫 무대는 웅장한 신세계 교향곡 4악장의 테마로 열었다.

지휘자의 원한 손길에 맞춰 학생들의 연주가 한층 힘을 더해가면서 비제의 카르네서곡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원조가 신나게 이어지는 레파토리는 지나가면 학생들의 발걸음을 하나 둘 멈춰 세우

게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오케스트라 각 파트별 악기를 소개하는 순서에는 학생들의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후 연주를 더욱 집중해서 듣는 등 교육적 효과가 컸다.

다솜We오케스트라의 약정 6학년 하현수 학생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공연을 지켜본 지역주민은 "아침에 학교에서 울리는 클래식은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어 좋았다. 학생들의 발표기도 아주 이런 공연이 자주 열리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학부모는 "학생들이 각 악기를 연주하며 어우러지는 모습이 서로 함께 어울려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등굣길 음악회가 학교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이번 '등굣길 꿈꾸는 음악회'는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아침 시간을, 지역민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진영대창초등학교의 등굣길 음악회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정서를 안정시키고 밝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은 물론, 나아가 지역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희기자 khh@

# “내가 직접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같아요”

### 창녕동포초, ‘즐거운 꼬마시장, 동포 프리마켓’

경남 창녕동포초등학교(교장 고영정)는 6월 30일 학교 공터에서 학생들의 기쁨과 정신 함양 및 학생 스스로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을 통하여 현행하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 체험을 할 수 있는 동포 프리마켓을 운영했다.

동포 프리마켓은 중소기업청 요청 비즈를 연구학교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버릇시장처럼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 사고팔면서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이다.

판매는 3학년부터 6학년 중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 30일에 지정된 공터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구매는 전교생이 행사 시간에 프리마켓 지정 장소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유로운 시장 분위기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학년 오영진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들러 구경만 해보았는데 오늘 프리마켓을 통하여 직접 사고파는 활동을 해보니 내가 직접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같고,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며 즐겁게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김희기자 khh@

서 장사하는 것 같고, 물건을 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며 즐겁게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김희기자 khh@



# 옛이야기로 소외된 이웃에 온정 나눔

### 마산도서관, 치매어르신께 그림책 읽어주는 가고파 도서관

경남 창원 마산도서관(관장 전석자) 행복나눔기 지원봉사대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산시니어카운티 요양원을 방문해 책 읽어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석자 관장은 “마산시니어카운티 요양원은 치매어르신과 행복한 동행! 2017년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옛이야기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은 팔죽

활판과 호랑이 등 다양한 큰 글자 그림책을 활용하여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읽도록 잊혀진 고품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마산시니어카운티 관계자는 “은성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준 마산도서관과 행복한 동행!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곳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계

신 분들이 보다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밝혔다.

한편, 마산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나눔기' 봉사단은 매년 책수 월 중에서 1일을 주변의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책 읽어주기, 성금모금 활동, 청소봉사, 어르신 발동무하기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희기자 khh@

##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매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을 상실해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흡연매해 심각성을 알려고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알고 계산하세요?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칭

-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3배~8.5배 높음
- (여성흡연) 폐암, 유선, 기항아 흡연위험, 영유아 돌연사 위험 증가
- (청소년흡연)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더욱 높음
- (중독성 1위) 니코틴은 복호인, 포커인, 마르틴보다 중독성 높음

각국 담배 광고물 비교

나라	광고물
한국	RAISON
호주	SMOKING CAUSES MOUTH CANCER
유엔연합	TONGUE CANCER
우루과이	FUMANDO, SE PUERE MORIR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율 비교

나라	담배가격 (1000개)	흡연율 (%)
대한민국	2,500원	14.3%
영국	1,800원	11.8%
스페인	2,200원	13.8%
일본	8,200원	21.6%
태국	8,400원	32.3%
중국	2,800원	28.4%
미국	1,400원	16.8%
한국	11,500원	12.2%
일본	14,500원	14.0%



# 경남도교육청, 학교안전계획 평가 보고·안전교육 연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29일 경남교육연수원 교학관 종합강의실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할 안전교육 컨설팅지원단과 안전강사요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안전계획 평가 보고 및 안전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안전계획 평가 보고 ▲지진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재난 안전교육프로그램 소개 ▲안전체험자료 사용 방법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안전교육 컨설팅지원단과 안전교육 강사요원은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안전 전문인력을 학교안전교육 지원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안전총괄담당 이종국 장학사는 학교안전계획 평가 보고서에 2016년 학교안전계획 실적과 2017. 학교안전계획의 개선할 점과 우수내용을 발표했다.

부산지방기상청 인천의 사무관은 기상청 지진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진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에서 체질중심의 안전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안전체질 교육자료 대역서비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세동기, 물소독기 등 안전체험자료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김희기자 khh@

# “아이들의 건강 우리가 지킨다”

### 양산소초초, 학교주변 미세먼지 해소 위한 컨설팅 실시

경남 양산 소초초등학교(교장 윤덕인)는 6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 환경담당 정대수 장학사를 초청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소초초등학교는 학교교장을 따라 경부고속도로, 양산인터널이 지나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주변이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 및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가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소음 및 미세먼지 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환경담당 정대수 장학사를 초청하여 학교 주변 미세먼지 문제 해를 위한 컨

설팅을 개최하게 되었다.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정대수 장학사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청 담당자, 교사, 학부모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에서 적용하는 농도 기준 재선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인 교장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이중창 설치, 학교순조성 등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기자 khh@